

2018 제2차 정기이사회

# 회 의 록

# 「충남연구원」 2018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

## ① 회 의 개 요

1. 일 시 : 2018. 12. 21(금), 10:30~13:30

2. 장 소 :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

3. 참 석 : 총 12명(이사 10, 감사 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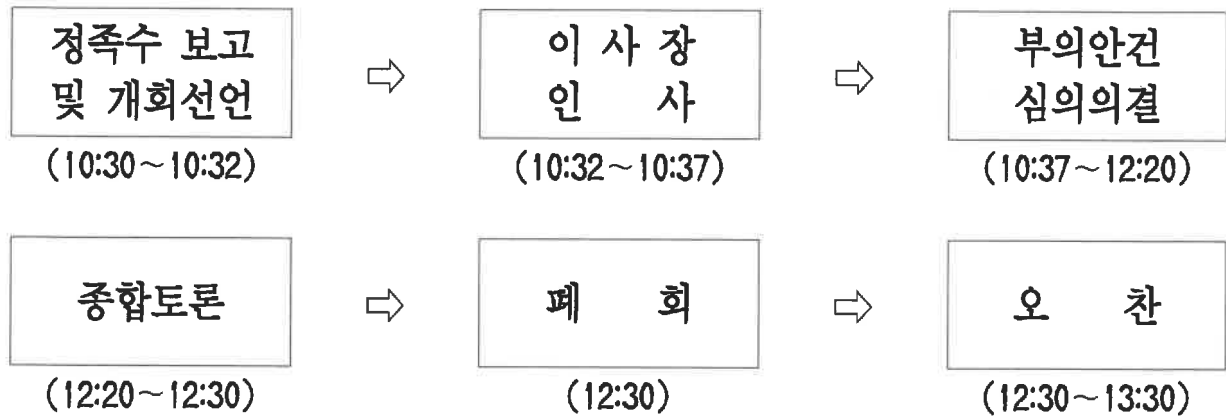
- 불 참(5명) : 이사장, 심미선 이사, 이원용 이사, 주형로 이사, 조운성 이사

### 4. 부의안건

#### □ 의결안건

- 제1항 2018 제2회 추경예산(안)
- 제2항 2019년 사업계획(안)
- 제3항 2019년 예산(안)
- 제4항 정관개정(안)
- 제5항 규정제정규정개정(안)
- 제6항 직제규정개정(안)
- 제7항 인사관리규정개정(안)
- 제8항 재무회계규정개정(안)
- 제9항 연봉규정개정(안),
- 제10항 기금관리규정개정(안)
- 제11항 용역사업규정개정(안),
- 제12항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정 개정(안)
- 제13항 비상임연구위원수당지급규정 개정(안)
- 제14항 실적평가규정 개정(안),
- 제15항 연구업무수행규정 개정(안)

## 5. 진행흐름



## ② 회 의 결 과

### □ 간사 안내

- 오늘 이사회는 이사장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연구원 정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이신 “김용웅” 이사께서 이사장을 대신해서 이사회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.
- “김용웅” 이사님께서서는 이사장 좌석에 앉으시어 이사회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김용웅 이사 이사장 석으로 이동]

### □ 개 회(간사)

[국민의례, 성원보고]

### □ 개회선언(이사장)

-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. (의사봉 3타)

## □ 이사장 인사

### 〈의 장〉

- 올 한 해 동안 이사님과 연구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충남연구원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.
-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연구원이 활기차고 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.
- 우리 연구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, 이사님들이 연구원에 보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.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, 새해 좋은 날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, 인사를 마치겠습니다.

## □ 부의안건 심의의결

### 〈의 장〉

- 부의안건 심의에 앞서, 본 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의록 기명 이사를 선임코자 합니다.  
이사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실 이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〈이영희 이사〉

- 제가 하겠습니다.

〈의 장〉

- 고맙습니다. 또 한 분 추천해야 합니다.

〈김제선이사〉

- 김혜경이사님을 추천합니다.

〈김혜경이사〉

- 공주에서 업무도 있고 해서,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

〈의 장〉

- 이영희 이사님과 김혜경 이사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?

〈이사전원〉

- 없습니다.

〈의 장〉

- 이사님 모두가 동의해 주셨으므로, 이영희 이사님과 김혜경 이사님을  
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기명이사로 선언합니다. (의사봉 3타)  
- 두 분 이사님께서서는 회의록 정리에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## 〈김혜경 이사, 이영희 이사〉

○ 알겠습니다.

## 〈의 장〉

○ 다음은, 간사께서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할 부의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〈간 사〉

○ 오늘 심의의결 하실 안건은

- 제1항 2018 제2회 추경 예산(안)
- 제2항 2019년 사업계획(안)
- 제3항 2019년 예산(안)
- 제4항 정관개정(안)
- 제5항 규정 제정·개정(안)
- 제6항 직제 규정 개정(안)
- 제7항 인사관리 규정 개정(안)
- 제8항 재무회계 규정 개정(안)
- 제9항 연봉 규정 개정(안),
- 제10항 기금관리 규정 개정(안)
- 제11항 용역사업 규정 개정(안),
- 제12항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(안)
- 제13항 비상임연구위원 수당 지급 규정 개정(안)
- 제14항 실적평가 규정 개정(안),
- 제15항 연구업무 수행 규정 개정(안) 등

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15건입니다.

### 〈의 장〉

-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부의된 안건을 유사안건별로 묶어서 일괄 상정한 후에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?

### 〈이사전원〉

- 없습니다.

### 〈이상선 이사〉

- 의장님!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.

### 〈의 장〉

- 예, 알겠습니다.

### 〈이상선 이사〉

- 내용이 방대해서 어제 살펴보지도 못했지만, 대체로 보면 신임원장님이 부임 하셔서 원장님의 충남연구원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.
- 이것을 요약 수준으로 간사가 보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업계획, 직제규정안은 원장님이 직접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 올 것 같습니다.



○ 꼭!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, 저의 제안입니다.

### 〈의 장〉

○ 우선 유사 안전별로 묶어서 상정하고, 안전별로 이야기 하는 절차는 동의하십니까?

### 〈이사전원〉

○ 동의합니다.

### 〈의 장〉

○ 원장님! 이상선 이사님의 요청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

### 〈원 장〉

○ 예,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### 〈의 장〉

○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, 부의된 안전 중  
유사 안전별로 묶어 일괄 상정하여 안전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.

○ 먼저,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(안)을 상정합니다.

(의사봉 3타)

○ 간사는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.

## [간사 제안설명 - 부의안건 참조]

### <의 장>

○ 수고하셨습니다.

간사가 보고한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말씀 바랍니다.

### <원 장>

○ 이상선 이사님 제안에 따라서 부의안건 상정안건 심의를 하기전에 사업계획안,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라서 심의의결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.

### <간 사>

○ 추경 예산안을 먼저 확정을 해주시고, 사업 계획안 할 때 원장님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.

### <원 장>

○ 예, 알겠습니다.

### <문봉국 감사>

○ 추가적으로 보조금 받는 사업이 이미 한 사업인데, 보조금이 늦게 나와서 집행 한 것인지! 시기가 지금 맞아서 한 것인지!

○ 어떤 의미 입니까?

### 〈간 사〉

○ 우리연구원이 2018 년 1차 정기이사회가 3월이었고, 3월 이후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보조 사업이 넘어온 것을 이번에 정리 추정하는 것입니다.

○ 정리추정 전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.

### 〈의 장〉

○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,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,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?

### 〈이사전원〉

○ 없습니다.

### 〈의 장〉

○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,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(안)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(의사봉 3타)

○ 다음은,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

-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사업계획(안)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(안) 등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. (의사봉 3타)

## 〈원 장〉

- 원장으로서 이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사항이 있어서, **2019년** 주요업무 사업계획안 72쪽을 참고하시고, **2019년** 연구원과 관련된 연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기존에 우리 연구원이 계속 해 왔던 연구 중 도정, 도의회, 시군자치단체, 충남의 주요이슈의 연구수요를 확대하려고 합니다.
- 특히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처음 시작되는 회기년도입니다. 여기에 연구수요를 맞춰서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.
- 민선7기에서 강조하는 저 출생, 고령화, 사회양극화, 지역 내 균형발전의 아젠다를 중장기 전략과제에서 집중적 연구 지원하는 사업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.
- 융복합 연구를 위해서 연구원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이번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상정한 배경을 설명 드리면서, 이와 관련해서는 **63~67쪽**을 보시면 새로운 직제에 대한 안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.
- 기존에는 부서제로 운영 하였습니다. 연구부서가 **8개** 센터가 **9개**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. 칸막이로 부서가 분리되어, 연구공간이 적어지고, 또한 자기 영역 속으로만 너무 들어가서, 다른 연구영역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
- 그 결과, 연구영역이 축소되었습니다. 융복합, 협업,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이번에 **5개실**의 대실제로, 관련 전공의 관련 부서로 정책을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폐합 했습니다.
- 공간환경연구실, 사회통합연구실, 경제산업연구실, 지역도시문화연구실 **4개실**은 사실상 연구실 기능을 갖고 나머지 **1개실**은 기획경영실입니다.
- 기획경영실은 이전에는 기획실과 행정실 나뉘어져있었는데 일괄적 지원

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부서로 통합을 했습니다.

- 센터들은 연구원 소속으로 통합관리, 지원을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
- 김석필 기획관님도 알다시피, 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서, 연구원이 관할을 했는데 연구원 협업체계가 여태껏 원활하지 못했습니다.
- 이번에 연구원, 도, 센터가 원활히 협업 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지원단으로 통폐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.
- 이것을 이사님들께서는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. 이전에 행정실 같은 경우 도에서 파견을 받아 사무처장제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.
- 정책사업지원단 센터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을 정책사업지원단의 행정지원팀에 합류 시켜서 연구원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.
- 그런 배경 하에 정책사업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. 이와 같은 조직으로 우리연구원이 개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
- 다시 72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이것은 융복합 연구를 위한 것 인데 전문가, 도민등과의 연구협력 시스템 강화와 맞물려 있습니다.
- 모든 과제들은 반드시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의 목소리, 현장의 전문가, 현장의 NGO단체 그분들이 “자문위원이든! 공동연구원이든!” 그 모든 과제에 참여해서 주민참여·정책참여 모델을 우리 충남연구원이 최초로 시도 해 보려고 합니다.
- 충남형 정책모델로 협력시스템의 연구 강화를 위해서 직제의 개정이 됐습니다.
- 이와 같은 것이 2019년 연구원의 중요 운영이기 때문에 이점에서 이사님들께서 많은 지지와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73쪽부터 연구부문, 76쪽 연구조성부문, 77쪽 연구지원부문, 79쪽 부설

조직 주요사업이 있습니다.

- 다만 75쪽은 도민의 생활환경개선 현장수용능력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담겨있습니다.
- 76쪽은 연구조성사업의 연구원 추진과제에 대해서 현장과의 연구협력을 확대시키는 기존과 다른 사업입니다.
- 이사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77쪽 세번째 연구원 공간 환경에 있습니다.
- 박사님 45명 부장님, 실장님 주요 권위자들이 계시지만 1인 1실이 아닙니다.
- 행정자치 도의원이 방문해서 하신 말씀이 사무실이 콜센터와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. 저 또한 처음 와서 느낀 것 이 1인 1실이 없는 연구원은 처음 봤습니다.
- 연구원환경개선사업을 이사님들이 이번에 도와주시면 이번 달에 TF를 구성해서 연구원 공간 확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.
- 내년에 할 때는 40개의 공간이 안 나옵니다. 우선 공간을 변경해서 5개든 10개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.
- 이것이 2019년 사업계획에 대한 큰 특징이고 내용입니다.
- 제4항부터 15항까지는 개정된 대표안건으로 사업계획안, 조직개선과 관련해서 조직융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안하면서 사업계획안을 마치겠습니다.

## 〈의 장〉

- 사업계획(안) 2항을 원장님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.
- 간사는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(안)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.

## [간사 제안설명 - 부의안건 참조]

### <의 장>

○ 수고하셨습니다.

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말씀 바랍니다.

### <이상선이사>

- 원장님의 많은 열정과 의욕이 조직 재설계 등에 담겨있습니다.
- 지적 하고 싶은 것은 66쪽의 센터통합과 관련된 조직을 설명 하시면서 3명의 행정요원을 받겠다! 그것이 정책사업지원단과 같은 경우 3급 파견요원 요청을 센터운영에서 고려하고 계십니다.
- 이 내용이 조직재설계를 통해서 현장성과 개방성에 상당히 상충됩니다.
- 연구기관의 자율성, 독립성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, 그것을 역행하면서 조직재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.
- 조직재설계를 공식적으로 재고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. 또한 조직진단용역을 의뢰 했었죠?

### <원 장>

○ 예, 그렇습니다.

### <이상선이사>

○ 또,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위상이 더 강화 되어야 한다고, 생각함

니다. 서울연구원이 먼저 시행해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있고, 규모, 위상이 강조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.

- 충남도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아직 그 단계에 미치지 못합니다.

예산의 효율성, 묻지마식 사업을 사전에 필터 할 수 있는 재량권, 권한, 위상을 특히 강조하셔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위상강화를 조직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## 〈원 장〉

- 정책사업지원단의 신설 관련해서 센터를 이렇게 한 것은 재산성본부의 조직진단의 결과를 참고로 했습니다. 센터는 도의 실과에서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수급을 받는 처로서 전용센터로 활용되었습니다.

- 수탁과제의 전용센터를 활용하는 현실적 측면을 저는 고민했습니다.

사실상 우리연구원 소속이지만 내포에 별도의 센터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.

- 센터전체가 내포에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.

그러다보니, 도와의 관계성을 그대로 두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.

- 통합지원본부를 뒤서 통제하기보다, 본원에서 센터가 독립하기 전까지 센터의 보호망이 되어주고, 본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, 효율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.

- 그 결과 실제로 도와 연구원, 센터 간의 공동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.

- 도와 센터의 직할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연구원은 빠져 있었습니다. 실제로 도와, 센터, 연구원의 업무권한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.

-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지원팀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행정팀장



팀원을 요청받고 지원단장은 법규에 2020년까지 도에서 올수가 없습니다.

- 우선 원에서 단장을 맡아 관리하면서,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.
- 도의 예산을 받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계획·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도, 연구원, 센터가 같이 협업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본원이 할 수 있는 최적의 판단이었습니다.
- 이런 이유로 정책사업지원단으로 묶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
- 공공투자센터에 대해서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해서 예산이 많습니다.
- 공공투자센터는 충남도에서 설립한지 얼마 안됐습니다.
- 공공투자센터에 대한 사업계획, 일등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. 이사님이 제기했던 공공투자센터의 위상강화문제를 도에 요구했습니다.
- 원장직할로 위상, 권한의 재위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.

### 〈이상선이사〉

-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, 행정에서의 소통,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정치력을 발휘해야지, 이렇게 행정의 예속체제로 가는 것은 연구기관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.
-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재고의 여지가 있으면 재고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.
- 지난 시기에 보면 사무처장 같은 경우 말년에 와서 했던 업무들이 얼마만큼 행정의 효율성, 도의 소통을 강화했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, 예속화하는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.

-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재고 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.

### 〈원 장〉

- 이사님의견에 똑같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. 퇴직관료보다 3급,4급 현직 요원을 파견 요청한 것도 그런 문제를 인식한 것입니다.
- 퇴직 전의 관료를 뒤서 관피아로 자기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.
- 우리연구원의 자율성 문제인데 사실상 굉장히 독립된 연구원이 되려면 수탁과제 받아서는 안됩니다. 센터들이 원 소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. 모두 독립시켜 나가야 됩니다.
- 도에서 필요하면 도자체적으로 만들어야합니다. 현재 출연기금 안에서 연구원이 독립적으로 해야 합니다.
-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! 고민을 했습니다.

### 〈이상선이사〉

- 도 요구에 의해서 이런 안을 내신 것입니까?

### 〈원 장〉

- 그런 것이 아닙니다.
- 우리 연구원 계획안을 낼 때 연구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한 결과입니다.
- 원장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.
-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. 이것은 단계적으로 합의해서 한 것입니다.
- 출범할 때는 이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, 또 다음 이사회 때 1년 평가

를 한 다음 문제가 있으면, 다시 재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

### 〈송광석이사〉

- 재고를 “할 것이냐! 말 것이냐!”는 이사회 끝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 참석을 못해서 2018년 사업보고를 다른 이 사람에게 들었는데, 간략하게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.
-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?

### 〈간 사〉

- 사업실적보고가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### 〈송광석이사〉

- 연구원 1인당 연구실적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?

### 〈원 장〉

- 5~6편정도 합니다.

### 〈송광석이사〉

- 결국 연구원의 직제인사규정! 연구원을 사회개념으로 본다면 무엇을 파는 집단인가!
- 호텔은 흔히 서비스를 판다고 말합니다만,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호텔은 좋은 객실을 고객에게 파는 것이 호텔의 기능입니다.
- 연구원은 연구실적을 팔아야 되는 곳 입니다. 그 내용의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. 연구원이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, 그것이 중요합니다.

- 연구하는 집단을 보면 기초과학을 하는 연구 집단도 있죠! 충남연구원은 도대체 어떤 연구를 하는지!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
- 대다수의 충남연구원을 접했던 자료를 보면 충남도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. “충남연구원이 다른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!”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.
- 센터가 “있냐! 없냐!” 센터가 누구소속으로 “있냐! 없냐!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연구원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.
- 연구원들이 5건 정도 연구하는데 “환경이 합당한 환경이냐!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냐!”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
- 먼저 실제 연구원이 처해있는 환경개선과 조직개편의 당위성은 사업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것에 의해 “어떤 결과를 얻었느냐!”가 핵심입니다.
- 며칠 전 간담회에 참여했는데 혁신도시지정에 관해 얘기했습니다.
- 혁신도시이전에 관한 얘기를 충남연구원 먼저 얘기를 했어야합니다.  
혁신도시 배제 이전에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, 충청남도가 “어떤 여건의 환경에 처할 것인가!” 충남연구원에서 언급 했어야합니다.
- 결국은 선제적 연구입니다. 그런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원의 조직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합니다.
- 그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선제적 연구를 통해 연구질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것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의견을 내 줘야합니다.
-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.

## 〈원 장〉

- 이미 저희들은 스크립된 상태여서 그 부분이 좀 생략이 되 있습니다만, 수탁과제를 많이 하는 분은 1인당 10편정도 됩니다.
- 그 결과 질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. 전략이든 현안이든 수탁을 했을 때 의 이 문제는 똑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. 그런 문제를 인식화해서 원장이 바뀌든 안바뀌든 도에 상관없이 1인 1실로 중장기 과제로 해야 합니다.
- 혁신도시 추진 문제에 대해 늦었지만 혁신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이미 센터에서 팀을 가동했습니다.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수탁과제를 줄이면서 1인 1실로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.
- 대실제의 1인 1인실로 수탁과제를 줄여가면서, 중장기적 입장에서 우리 연구원이 출범하려고 합니다.
- 구체적으로 통계, 수치 이런 것 들은 행정감사 받으면서 준비 되어있습니다.
- 참고자료를 이사님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

## 〈김석필감사〉

- 기획관실 소관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조직개편의 자율성을 도도 최 대한 존중합니다.
- 조직개편의 부원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- 12년 부서 제에서 19년 도에 대실제로 다시 가는 것 입니다. 융복합, 클러스터한 조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.
- 예전의 센터들이 각 부서별로 만들어 졌습니다. 사실은 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, 부서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

리가 안되고 조직이 센터가 만들어 졌는지도 몰랐습니다.

- 3급 4급 파견공무원, 명예퇴직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, 이것은 도에서 파견을 안 해도 됩니다. 연구원에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.
- 연구원은 기초연구가 아니고 정책연구를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실행을 해야 하는 센터가 와서 같이 결합하는 구조라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.
- 앞으로 대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1대1로 매치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깐 센터는 늘어났지만 연구원과 부서 간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조직적 컨트롤 타워는 필요합니다.

### 〈김제선이사〉

- 원래 기획실의 연구기능을 기획경영실의 행정조직과 통합했습니다.  
연구가 주된 부서인데 행정직이 연구기획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
- 경영 기획실장님을 연구원 내부 행정직이나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으로 하시는 것입니까?

### 〈원 장〉

- 그렇지 않습니다. 내부 연구직이 말합니다.

### 〈김제선이사〉

- 도에서 파견될 수 있는 분들은 현재 센터들이 많은데 통합조정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받겠다는 것이죠!
-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?

### 〈김석필감사〉

- 아닙니다. 연구원에서 요청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,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 것입니다. 조직내부에서는 정책사업지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.

### 〈원 장〉

-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. “요청을 이렇게 하겠다.”하는 뜻이지 요청을 해서 올지! 안 올지!는 추후문제입니다.
- 일단 요청하면 오면 좋겠다는 저의 판단입니다.

### 〈김혜경이사〉

-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퇴직전의 공무원분들이 오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, 또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도 갈등 구조의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.
- 이전에 자문회의 할 때도 이 부분이 걸려 있었습니다.굳이 정책사업지원단이 있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좋게 보입니다.
- 지원에 대한 기능을 꼭 도에 있는 공무원이 들어와서 연결을 해야하는 것은 재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

### 〈원 장〉

- 행정지원팀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6급, 7급이 만약에오면 그분들만 행정지원팀에 있는 것이 아니고, 우리 연구원의 1~2명하고 각 센터에서도 현재 9퍼센터의 기금을 1퍼센트 더 내서 그 기금을 활용한 인원을 뽑아

서 지원 할 생각입니다.

### 〈김혜경이사〉

- 연구소마다 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도의 관리인원을 두는 것이, 센터 입장에서 보면 과정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. 사람만 많아 질수록 연구를 하는데 얼마나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, 의문이 듭니다.
- 센터장님들 의견은 수렴했습니까 ?

### 〈원 장〉

- 예, 수렴했습니다.

### 〈이상선이사〉

- 정책사업지원단에 포함된 각 센터들이 중간지원을 하는 단위들입니다. 그런 센터들을 무수히 만들어놓고 어정쩡하게 방관 형태의 연구원에 위탁을 한 것 입니다.
- 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보면 이것이 과연 연구원이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!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! 각 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점검해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
- 행정관리 하는 체제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
- 감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면 발언을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


## 〈송광석이사〉

- 저는 이상선 이사님 말씀을 확실히 현실적인 부분에 일부 공감합니다.  
저는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공무원의 사회는 경직사회입니다 아무리 개선을 시킬려고 해도 경직된 사람들입니다.
- 그러면, 우리 연구원들이 도에 가서 이야기 했을 때 과연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받아줄 것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.
- 관하고 거래하는 사회기업도 관 출신을 데려다 씁니다. 그것을 흔히 우리는 비리라고 생각합니다. 문제는 이야기가 안통합니다.
- 결국엔 공직사회가 더 큰 문제입니다.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이 밀어도 그분들이 안 듣습니다. 연구원에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.
- 그런데 자기 사람이 와서 중간에 걸려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다는 것이죠!
- 관에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안 데려다 쓰는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
- 저도 김혜경이사님, 김제선이사님, 이상선이사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. 현실은 중간에 걸려 줄 사람이 필요한 그런 취지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비쳐줘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-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.

## 〈김제선이사〉

- 도에서 충남연구원이 위탁사업 하고 있는 센터들이 많아져서 통합관리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.
- 송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가 민·관 위탁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편의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으로서 협력과정을 설명 하신

건데, 이걸 제가 볼 때는 도지사나 기조실장이 각 센터장과 협의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지원반의 취지는 행정실에서 하는 것이 복잡하니까, 별도 관리하는 관리 부서를 두겠다는 것 같습니다.

- 연구나 실행사업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관리통제를 본 조직이 아니고, 특수조직으로 만들어서 관리 통제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
- 위탁의 모범이 충남연구원이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지원팀을 신설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. 또 사실상 관리통제로 원활히 하겠다는 문구가 있고 관리통제를 이중삼중으로 받는 것입니다.
- 지방자치법 계정이 불확실하고 시행령 조직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 연구원이 먼저 “충남도에 공무원 파견요청 하겠다.”라고 쓰면 우리 이 사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라는 것입니까!
- 어쨌든 각 센터가 있고 위탁받은 것은 줄이고 위탁받은 센터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어떻게 할까! 라는 측면에서 본원의 운영과 다른 특수성을 살려야겠다는 말씀을 하셔야합니다.
- 2020년에 할 것을 19년 계획에 왜! 쓰시냐는 것입니다.
- 대 부서제로 해서 기획하시고 하겠다는 원장님의 경영방침은 새로 부임 하셔서 새롭게 설계한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.
- 그런데 공무원파견요청 임용자체의 문구는 삭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- 기조실장님의 주제 회의를 통해서 실제 사업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.
- 도 전체적으로 형평화된 부분을 요청하고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협력관계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.

### 〈김석필감사〉

- 정책사업단에 공무원 3급 4급 문구가 들어가서 우리가 불통의 대상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유감입니다. 우리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.
- 충남연구원에서 “이런 식으로 향후에 운영하면 좋겠다.”라는 안을 내신 것이지,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

### 〈의 장〉

- 예, 잘 알겠습니다. 이사님들이 많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만, 우선 진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진행 전에 공공투자센터와 정책지원사업단 자리가 바뀐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연구원에서 다시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.
- 쟁점은 다른 의견 없으시고 조직개편의 정책사업지원단에 대해서 반대 논의가 있으시고, 또 다른 측면은 지원단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없지만,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용어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
- 이안을 투표를 해서 결정 할까요! 어떻게 할까요?

### 〈원 장〉

- 파견관련 문제는 재고요청을 받아들이고, 정책사업지원단에 대한 운영문제는 좀 더 검토한 다음에, 추후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### 〈의 장〉

- 문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.

### 〈문봉국감사〉

- 실장이 한분인데, 개편되면 어떻게 됩니까?

### 〈원 장〉

- 전 직제에서는 부서장과 연구실장 있었습니다. 실이 5개로 개편됩니다. 실장이 1명 이었는데 실장이 연구실장과 같은 직위로 5명이 됩니다.

### 〈이상선이사〉

- 수평적 구조라는 것이죠!

### 〈원 장〉

- 실장이 책임, 관할을 다 갖도록 했습니다.

### 〈김석필기획관〉

- 예산안에 대해서 초과근무 수당이 2018년도 제수당이 포함되었는데 19년도 기본연봉에 포함되었습니다. 연봉에 포함되면 안됩니다.
- 그 부분은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### 〈의 장〉

-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, 연구원에서 제출한 2019년도 사업계획안의 정책지원단은 재고토록하고 제3항 예산안중 초과근무시간은 재검토를 하는 조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,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?

## 〈이사전원〉

○ 없습니다.

## 〈의 장〉

○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, 의사일정

제2항 2019년도 사업계획(안)의 정책지원사업단은 재고토록 하고, 제3항 2019년도 예산(안) 중에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조건으로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(의사봉 3타)

○ 다음은, 연구원 조직개편과 혁신에 관련한 규정개정 입니다.

- 의사일정 제4항 정관 개정(안),
- 제5항 규정제정규정개정(안)
- 제6항 직제규정개정(안),
- 제7항 인사관리규정개정(안)
- 제8항 재무회계규정개정(안)
- 제9항 보수규정제정(안)
- 제10항 기금관리규정개정(안)
- 제11항 용역사업규정개정(안)
- 제12항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정개정(안)
- 제13항 비상임연구위원수당지급규정 개정(안)
- 제14항 실적평가규정개정(안)
- 제15항 연구업무수행규정 개정(안)등

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.

(의사봉 3타)

- 간사는 12개 안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.

### [간사 제안설명 - 부의안전 참조]

- 수고하셨습니다. 부의된 안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〈김석필감사〉

- 244쪽 7항에 인사조직부분입니다.
- 21조 사항중 제1항을 삽입하고,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. 징계처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,포상, 도지사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“제 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제한기간의 2분의1”을 단축할 수 있다.
- 이 부분은 도지사급의 상이 요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, 공무원 관련 자료를 보면 국무총리이상 상을 받으면 양형기준이 있습니다.
- 도지사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남발 되어서 급이 낮은 것 같습니다.

### 〈간 사〉

- 1항을 삽입한 이유는 기존에 항이 없어서 호가 1항이 되는 것입니다.
- 2항은 징계처분입니다. 지방공무원령에는 국무총리급 이상으로 나왔는데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.

### 〈김제선이사〉

- 특별임용 및 절차를 삭제 했습니다.
- 특별임용을 절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?

### 〈간 사〉

- 예, 정부방침과 출연·출자법을 보면 특별임용이 없어 졌습니다.

### 〈김제선이사〉

- 보수규정 용어의 정리가 변경 된 것이 있습니까?

### 〈간 사〉

- 보수규정 제정에 따른 유입물을 보시면 변경전과 현행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. 연봉규정자체가 연봉이 급여자체로 구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봉규정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.
- 보수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인사관리규정과 겹쳐서 인사관리에 있는 부분들은 삭제했습니다. 보수규정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.
- 연봉외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정확하게 구분한 내용입니다. 급여가 인상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.

### 〈이상선이사〉

- 243쪽에 유연 근무제 명단은 지침이 내려와서 심사를 한 것입니까?

### 〈간 사〉

- 우리연구원은 탄력근무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규정에 올리지 못해서, 그렇게 한 것입니다.

### 〈김제선이사〉

- 비상임 연구위원 수당지급 관련해서 위촉연구원은 왜 삭제했죠?

### 〈간 사〉

- 비상임연구위원 수당지급 규정은 기존의 위촉연구원은 정원의 운영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. 이전 규정에서는 위촉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현재는 사문화 된 직제입니다.
- 위촉연구원은 쓰지 않고 정원 외 연구원이 그 일을 대신합니다.

### 〈의 장〉

- 인사관리규정 승제한규정의 양형기준강화는 연구원에서 “재검토 하도록 하겠다.”고 했습니다.

### 〈이상선이사〉

- 의장님 유보가 아니라 재검토죠?

### 〈의 장〉

- 재검토입니다.
-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,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,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?



## 〈이사전원〉

- 없습니다.

## 〈의 장〉

-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, 제7항 인사관리규정개정(안) 제 21조 2항 중 훈장·포상·도지사급의 표창을 받은 경우의 양형기준은 재검토를 하고, 의사일정

- 제4항 정관 개정(안),
- 제5항 규정제정규정개정(안)
- 제6항 직제규정개정(안),
- 제7항 인사관리규정개정(안)
- 제8항 재무회계규정개정(안)
- 제9항 보수규정제정(안)
- 제10항 기금관리규정개정(안)
- 제11항 용역사업규정개정(안)
- 제12항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정개정(안)
- 제13항 비상임연구위원수당지급규정 개정(안)
- 제14항 실적평가규정개정(안)
- 제15항 연구업무수행규정개정(안)등은

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## (의사봉 3타)

- 이상으로,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
- 다음은, 충남연구원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

갖도록 하겠습니다.

-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이사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

## 〈이상선이사〉

- 원장님의 연구원 운영에 대한 경영철학을 듣고 싶습니다.

## 〈의 장〉

-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바뀌가는 정책연구을 만들었으면 합니다.
- 현장에 답이있고 현장 속에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연구를 하고싶습니다.
- 연구원 가족들부터 같은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서 함께 같이 가자!  
시군, ngo단체, 현장의 기업, 주민등과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가자!
- 저는 정책연구를 하는데 있어서, 도민과 연구원이 맨투맨으로서 정책적 제안에 대해 협업 하고 싶습니다.
- 그런 측면에서 도, 시·군, 연구원이 있지만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반관계로 같이 가면서 경영을 하고 싶습니다.
- 원장으로 취임해서 문제점을 꼬집어 내어, 칼질을 해서 도려내는 것 도 좋지만, 자생의 힘으로 안을 치유하는 치유법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.
- 기존의 방향과 달라서, 이상선이사님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.
- 방향은 바뀌어도 목표는 같습니다.
- 비정규직 정규직전화문제로 TF를 구성하고,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
- 이안이 나오면 이사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3년 안에 다할지 모르지만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등 센터들이 독립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지원단을 만

들었습니다.

- 전략적 판단에서 만들었습니다만, 그것에 대한 재고를 이사님들이 요청했습니다. 오늘 부터 12월 말까지 그 문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.
- 결론은 함께 가는 연구원을 만들고 싶습니다.
- 도, 시민, NGO단체등과 협업해서 중장기 전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.

### 〈의 장〉

-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! 다른의견 없습니까?

### 〈이사전원〉

- 없습니다.

### 〈의 장〉

-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.
- 원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고자 해서 그에 따라서 이사님들이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.
-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 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.
- 충남연구원이 항상 잘해오셨습니다. 내년에도 보다 더 많은 발전 이루시고, 충남연구원이 무엇을 파느냐! 고객이 누구냐! 말씀하셨는데, 1차 고객은 도청입니다.
- 도의 일 그 다음이 시정입니다. 우리가 직접 시민을 상대하지 않습니다. 그곳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충남연구원이 하는 일입니다.

- 내년에도 그동안에 이뤘던 성과 못지않게 더 큰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
-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**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**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(의사봉)

## □ 회의록 작성 날인

- 충남연구원 2018 제2차 정기이사회(2018. 12. 21)의 진행 및 의결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고,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서명이사, 감사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이를 증명 함.

의 장 김 용 웅 (인)

이 사 이 영 희 (인)

이 사 김 혜 경 (인)

감 사 문 봉 국 (인)

감 사 김 석 필 (인)